



스위스재보험, 2010년 3분기 순이익 미화 6억 1천 8백만 달러 기록 및 버크셔 해서웨이에 발행한 전환사채 상환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10년 11월 5일 서울 -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3분기 미화 6억 1천 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에는 미화 3억 1천 4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2010년 11월 3일자로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오늘 스위스재보험은 향상된 자본기반을 바탕으로 조기상환 추가수수료 없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상환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스위스재보험은 이에 대한 이자비용 및 20%의 프리미엄의 비용(환율 조정 후)을 2010년 4분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약 미화 10억 달러(세전)의 비용이 예상된다. 해당 비용을 처리한 이후에도 스위스재보험의 자본비용은 ‘AA’ 등급의 요구자본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기업성과 기록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3분기 미화 6억 1천 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에는 미화 3억 1천 4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2010년 3분기 주당순이익은 전년 동기 0.97 스위스프랑(미화 0.92 달러) 대비 1.93 스위스프랑 (미화 1.80 달러)을 기록했다.

2010년 3분기 자기자본은 미화 24억 달러 증가한 미화 29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9.5%로 전년 동기에는 6.1%를 기록했다.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10년 6월말 78.44 스위스프랑(미화 72.51 달러) 대비 2010년 9월말 77.81 스위스프랑(미화 79.65 달러)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사업 이례적인 실적 지속

2010년 3분기 손해보험 사업은 전년 동기 미화 9억 달러 대비 미화 11억 달러의 우수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0년 3분기 합산비율은 미화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뉴질랜드 지진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84.5%(할인율 적용 전 82.7%)에서 76.4% (74.8%)로 개선되었다.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합산비율은

95.6%를 기록했다. 평년을 밑도는 자연재해 발생빈도, 꾸준한 체계적 언더라이팅, 사이클관리, 이전 계약년도 사업의 이익실현이 2010년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0년 3분기 생명보험 사업은 전년 동기 미화 3억 6천 3백만 달러 대비 미화 1억 1천 9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81.1%를 기록했던 지급율은 2010년 3분기 93.3%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일부 사업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과 더불어 이전 계약년도의 실현 수익 부재에 따른 결과이다.

자산운용 부문은 전년 동기 미화 6억 9천 7백만 달러에 이어 미화 12억 달러의 견실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0년 3분기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전년 동기 1.6% 대비 2.8%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헤지 및 감액상각으로 인한 영향 감소 및 부분적으로는 환율 변동의 영향이다. 연환산 총투자수익률은 전년 동기 14.3% 대비 10.6%를 기록했다.

2010년 2분기에 완료된 미화 1억 9천 5백만 달러의 그룹 내 거래 관련 환율 손실 등이 2010년 3분기 그룹항목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의 주석 1 '조직 및 회계원칙요약'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중심

스위스재보험은 재보험, 기업솔루션, Admin Re®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역량과 시장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 전달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고객중심 3대 핵심 부문은 각각의 전담 집행위원회 위원이 책임질 예정이다.

스테판 리페는 “이러한 변화는 스위스재보험이 고객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견실한 자본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계약 갱신에서도 고객의 탁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급 확정 및 향후 전망 상향 조정

스탠다드앤amp;P(S&P)는 2010년 10월 12일 스위스재보험의 장기신용 및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해 'A+'등급을 확정했다. 향후 전망 또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등급의 상향 조정은 위험축소 방안의 속도 및 효과와 기업의 견실함을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의 재무건전성이 상당수준 회복됐다는 S&P의 평가를 반영한 강력한 신호이다.

향후 전망

스위스재보험은 저금리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혁신 역량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위스재보험의 (재)보험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환경에 잘 맞춰져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사이클관리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분야에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테판 리페는 “2009년 초 스위스재보험은 신뢰회복을 목표로 확고한 약속을 내걸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했고 회사 실적을 성공적으로 회복했다. 스위스재보험은 미래를 최우선시하고, 자사의 전략을 실행하며 핵심 역량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쾰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 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